

확장이전 · 새 CI로 제2 도약 다짐



백산하이테크의 CI

지난 7월 4일 경기도 일산 고양시에 위치한 종합인쇄사인 백산하이테크(대표 조전국)는 신사옥으로의 확장이전과 새로운 CI를 선포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도입되는 하이텔베르그사의 XL 105 시연회도 함께 열려 업계관계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대규모 부지와 화려한 조형미 압권

백산하이테크가 신사옥 건립을 위해 마련한 부지는 2000평 규모로 11미터에 이르는 공장 높이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화려한 위용을 자랑한다.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과 돛형식이 가미된 지붕은 인쇄사라기보다는 하나의 박물관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건물 디자인은 예술의 전당에서 영감을 얻어 건립되었다고 한다.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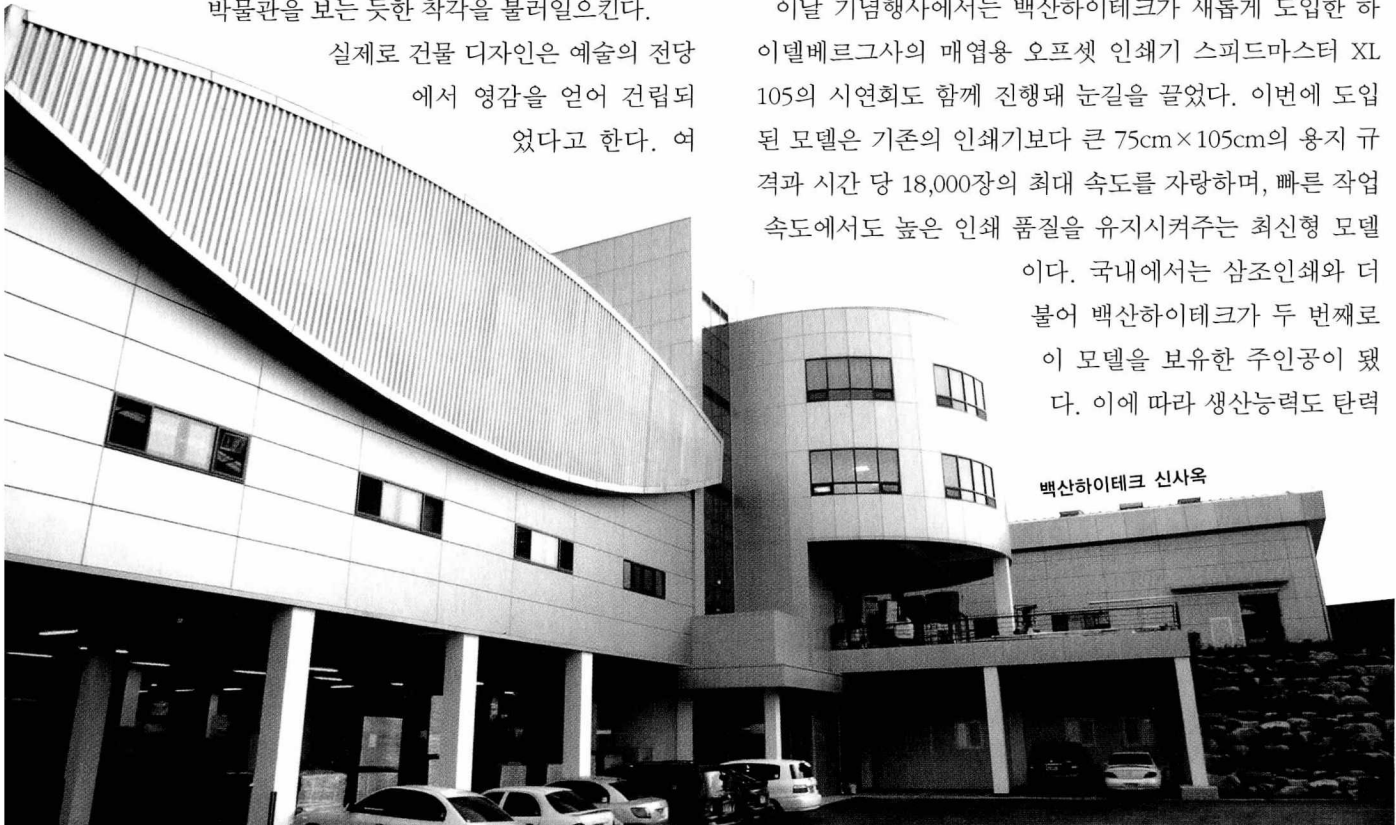
기에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힌 외관은 백산이라는 회사이미지를 말없이 몸으로 나타내준다. 건립에 사용된 자재는 모두 100% 불연자재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애쓴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다.

백산하이테크가 이전한 신사옥 부지는 인쇄사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과 근접해 있어 주문을 의뢰한 고객이 직접 방문해 교정을 보기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회사 바로 앞에는 제2자유로가 뻗어 있어 물류 운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보다 빨리 완성된 인쇄물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짝 지가도 이점이다.

스피드마스터 105도입으로 생산력 업그레이드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백산하이테크가 새롭게 도입한 하이텔베르그사의 매엽용 오프셋 인쇄기 스피드마스터 XL 105의 시연회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도입된 모델은 기존의 인쇄기보다 큰 75cm×105cm의 용지 규격과 시간 당 18,000장의 최대 속도를 자랑하며, 빠른 작업 속도에서도 높은 인쇄 품질을 유지시켜주는 최신형 모델이다. 국내에서는 삼조인쇄와 더불어 백산하이테크가 두 번째로 이 모델을 보유한 주인공이 됐다. 이에 따라 생산능력도 탄력

백산하이테크 신사옥





지난 7월4일 열린 백산하이테크 신사옥이전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국내 두번째로 도입한 하이델베르그사의 스피드마스터 XL 105

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백산하이테크는 110명의 직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기획에서 편집, 출력, 제판, 인쇄, 제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원스톱 방식으로 일괄처리 되고 있는데, 2부제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생산라인은 200페이지 짜리를 기준으

로 월 250만부의 제본이 가능하며, 기계실에서는 4도 인쇄를 기준으로 한달에 2천만통의 인쇄물을 소화해내고 있다. 여기에 XL 105의 인쇄처리 능력이 더해지면 생산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

조전국 대표이사는 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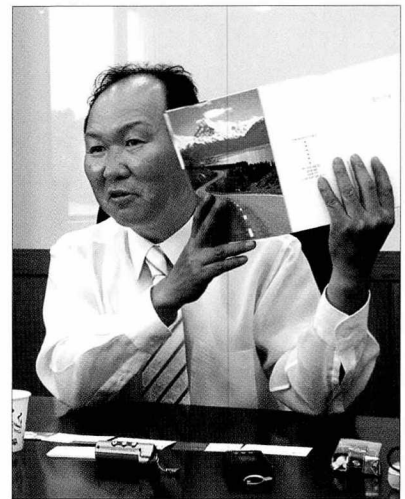
품질경영중시하는 타고난 인쇄 경영인

올해로 11년 넘게 백산하이테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조전국 사장은 원래 지류회사에 근무하던 지류유통분야 출신이다. 비록 전문인쇄인은 아니었지만 백산하이테크(당시 백산인쇄)의 대표이사를 맡을 당시 지류업계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플러스 요소로 작용했다. 지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인쇄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 습도에 민감한 종이는 자칫 관리를 잘못할 경우 뒷문을 현상이 생기거나 변질이 되기 마련인데 그가 부임한 후부터는 종이로 인한 인쇄트러블은 자연스레 해결됐다. 지금에야 많이 감각이 무뎠지만 예전엔 냄새만 맡고서도 어떤 종이인지 알아낼 정도였다.

부임 후 조사장이 가장 주력한 부분은 바로 인쇄선진국들의 경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국내 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해외 20여개국을 돌아다니며 우수한 경영사례들을 수집하는 노력

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얻게 된 결론은 바로 품질 경영만이 살길이라는 것. 작업환경이 품질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조사장은 품질향상을 위해 최신기기의 도입에 적극 나섰다. 1991년 하이델베르크 5색 오프셋 인쇄기 1대를 들여오며 맺게 된 한국하이델베르크사와의 끈끈한 협력관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번째로 도입한 스피드마스터 XL 105도 우수 설비에 대한 욕심이 남다른 그의 집념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사장은 직원들의 복지와 업무능력 향상 방안 마련에도 골몰했다. 백산하이테크는 올 가을쯤을 목표로 일본 우수 인쇄사와의 자매결연을 추진중이다. 자매결연이 성사되면 교환근무 형식으로 한국의 직원들을 일본으로 보내 그곳의 인쇄기술과 생산 및 경영시스템들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각종 해외 전시회나 기술연수 참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해 조전국 사장은 성공한 경영인이다. 그가 부임하던 해 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였던 회사는 지난 해 250억원의 매출 실적(지류사업부분 포함)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3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신사옥부지 매입문제로 은행문을 두드리기전까지 줄곧 부채율 제로의 경영실적을 유지해왔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